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오늘의 어린이**

성경: 창세기 37장 1-11절

Tag:

1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는 꿈을 들으시오

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꾸는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며칠전 생수전도 하면서 횡단보도에서 똑똑한 남자 이런이를 만나게 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쯤?

-생수를 건네는 나에게 귀찮으니 저리 가세요 한다.

-나는 깜짝 놀라, '얼굴은 잘생겼는데, 태도가 왜 그러니?' 했다.

-그랬더니, 대뜸 외모 비하 발언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한다.

-나는 그 아이의 똥똥함에 한번 더 놀랐다. 나는 이목구비는 바른 데, 태도는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논리적 비약은 약간 실망이지만, 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나름 공격용으로 잘 사용했다.

-그건 그렇다해도 너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네? 했더니, 우물쭈물 하면서 신호등이 바뀌어 재빨리 도망가고 말았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요즘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생겨난 윤리 교육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야흐로 과거의 율법주의는 사라지고, 새로운 율법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과거 율법주의로 아이를 판단하였고, 아이는 새로운 율법주의로 나를 판단한 셈이다.

-요즘들어 특히 우리나라는 새로운 율법주의로 인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정치적 이념이다.(우리나라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있다.) 그 이유는 체제가 세상이 모든 영역을 세팅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두가지 체제 가치가 공존하면서 치열하게 정의를 다투는 것이, 한가지 체제가 국가를 지배하면서 갑질하는 것 보다 낫다.)

-둘째로는 가상화폐와 기존화폐의 대결이다.(경제적 우위 점령에 대한 갈등이다.) 과거 금본위제도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제는 토지분위제의 시대가 되었고, 매쓰미디어 본위의 시대가 되었다.

-통화량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 의해서 정밀하게 조정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통화량증가가 문제다.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

-가상화폐는 이런 기존의 틀이 근본적으로 일부 장악하고 있는 자들의 주도권을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만들어 낸 새로운 가

치판단도구인데, 왠지 여전히 구시대의 유행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니면 기생하고 있는 중.

-셋째로는 환경, 공정무역, 페미니즘 등 좌파이념들이 생산해 내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다. 특히 페미니즘은 기존의 가정개념을 파괴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확장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관계 자체를 인스턴트화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이대남 현상은 이런 새로운 율법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십대들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는것에 익숙해져있다.(선진 십대) 전에는 페미니즘스러운 가르침에 고분고분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며칠전 신문에는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체육복 갈아입기 싫다고 역차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성군복무제도 뜨겁다.

-페미니즘 덕분에 이제 로맨스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된 듯하고, 로맨스존으로의 접근 자체를 피곤하고 위험하게 여기는 자들이 늘고 있다.(이념차이 때문에)

-과거의 가정이나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것 자체가 아재스러운 시대가 된 셈.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개념도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다. 야곱은 오직 라헬을 사랑했고, 그의 아들 요셉을 장자로 여겼다. 안타깝게도 다른 자식들은 요셉만큼 정이 가지 않았나보다. 아무래도 속아서 한 결혼이었고,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긴 결혼생활이다보니 더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뽕뽕 뭉쳐서 아버지와 요셉에게 대항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 되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눈치가 없었다. 아직 어렸고,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충만했다. 그의 장점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는 것

이다. 야곱이 부러 다른 자식들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요셉만큼은 각별한 아들이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 그러나 일찍 먼저 죽어버린 아내의 첫 번째 자식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장남이라는 의미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습에서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별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상한 꿈을 꾸고 주체넘게 식구들을 기분나쁘게 하는 제수없는 놈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안타깝게 본인은 자기가 그토록 왕따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다행인가?)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는 점이다. 이것이 다른 아들과 다른 그만의 장점이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오직 이것 하나만큼은 강조된다. 사랑받고 자랐는가? 그렇지 앓는가? 설령 청소년때 방황하거나 이런 저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가 사랑받고 자랐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그는 이미 로얄제리를 먹고 자란 별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물론 이런 논리는 여왕별만 진짜 별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적용되는 논리)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일단 로얄제리를 먹고 자라는 여왕별의 원리와 같다.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왕별을 만드는 자는 일별이다. 자기는 여왕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여왕별을 만들 수 있다. 일별이 평범한 새끼에게 로얄제리를 두배로 더 많이 먹이면 된다. (3일+3일=6일)

-즉 누가 사랑을 충분히 많이 받느냐가 관건.

-오직 하나님만 편애가 없으시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3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니라 (고전8:3)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6:5)

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 10:12)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4:10)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율법이 사람들을 괴롭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도의 가정생활

성경: 디모데전서 5장

Tag:

1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 기독교의 가정윤리는 기본이나, 가정에서만 그치는 윤리는 아니다.
- 가정이 우선이나, 가정을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유교윤리.
- 가정에서 하듯 교회에서 하라.
- 노인을 (꾸짖지 말고;목회자에게 하는 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2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3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 과부는 존대하라. 특히 참 과부는 더 존대하라.
- 그는 자녀를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 사유리의 출산.
- 우리나라는 화냥년(환향녀-호로(오랑캐)자식)의 전통이 있어서 미혼모를 홀대한다.
- 홀로 키우는 자식이라는 뜻이 맞다.
- 교회생활은 곧 경건생활이므로, 과거가 어떠하든, 그가 회개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이상 그를 과거의 죄로 판단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야 할 것이다.
- 이 후에 그가 믿음을 버리더라도, 교회에 남겨진 식구들은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 태생이 문제가 아니라, 양육이 더 중요함.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다. 핏줄이 중한게 아니라, 양육이 중하다)

- 사회공동체가 과부의 자식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뜻.
-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디모테를 바울은 아들처럼 여김.

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 과부에게 자녀가 있거든, 그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토록 하라.

5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 참과부는 경건하여 교회에서 간구와 기도하는 여인
- 이런 여인은 교회에서 돕는 것이 좋음.

6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7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 가족과 친족을 돌보는 자가 선한 자.
- 어떤 형태로든지 가족과 친족이 도움이 필요하면 정성껏 도우라.
-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 60이상된 과부가 참 과부;명부에 올림-구제 명부.

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11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 오늘날 수녀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없음.
- 말씀의 핵심은 경건을 선택하라는 것.

-시집 가고도 얼마드닛 경건할 수 있음.

12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징죄를 받느니라

13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 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14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페미니즘이 가정의 중요성을 파괴하고 있으니, 악한 사상을 대적하여 바른 사상을 세워야 할 것이다.

15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 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 주게 하려 함이라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8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땅을 씹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9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일벌백계하라. 그를 내어 쫓아서라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가 부끄러워하면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차선책이 된다.

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인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지주 나는 병을 위하여

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심판에는 순서적 차별은 존재해도 면죄는 없다.

25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